

2014년 2월.

정력형 '성별' media..

서로대 각자가 따로.

이런. 그냥시 맥락.

나침글로즈...

2015년 연세대 총여학생회, 무엇을 할 것인가

김신현경(1998년 제 10대 연세대 총여학생회장 / 여성학 강사)

여력이 혼자 <모래>, <양자가 된 소녀들>

1. 응답하라 1994?

-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쟁취 이후 다양한 시민운동으로의 분화 : 학생운동 또한 '민중의 대변인'이 아닌 학내 여러 집단들의 네트워크 중심 포인트로 자신들을 정체화하기 시작함

-대학 내 여성운동세력의 결집과 실험 : 1996년 연세대 성정치문화제의 충격. 민주화 이후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유라는 판단 그리고 그 실험의 일환으로서의 성정치 + 학생운동의 부문운동이 아닌 여성주의 고유의 이슈 정치화 주장 + 다양한 시민운동 중 여성운동의 약진 (서동진, [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라] / 달과 입술, [나는 페미니스트이다] / 전희경, [오 빠는 필요없다] 참조)

쟁점 : 일상, 문화, 성, 몸, 연애... '개인적인 것이/정치적인 것이다'
운동의 주체 : 남성중심적 대학 질서 속의 '여자' 대학생

반성문과 자괴기, 양자-학생...

시대대에서

백인인원리.

구조적으로 만든

2. 개인적인 의미

- '여자 대학생'으로서의 '일상'에 대한 개인적 각성

-동지인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훈련 (갈등 조절에서부터 조직화까지)

-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? : 여성주의 활동가/학자라는 진로의 선택

과도한대까지

3. 그리고 여러분들의 2015

1) 대학 내 여성운동, 어디에 있나

-대학의 위치 : 신자유주의 시장화와의 밀접한 관련. 자기계발하는 남녀대학생들. 시간과 스펙, 사이버라는 키워드.

(제니퍼 위시본, [대학 주식회사] / 서동진, [자유의 의지, 자기계발의 의지] / 오찬호, [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] 참조)

-운동의 주체는 누구인가? : 대학의 남성중심성은 어떻게 변모했나? 대학생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, 성별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? 성 정체성의 문제는 또 어떤가?

-쟁점 : '정치적인 것이 개인적인 것이다'

3 not 'man' as a person.

2) 두 가지 길+

① 모든 개인은 두 성(sex) 중 하나다 : 추상적 개인을 탈성화함으로써(성의 물리적 차이가 보편적임을 인정) 모든 부문의 성평등을 달성하려는 전략. 프랑스 남녀동수 운동의 예. (조앤 W. 스콧, [성적차이, 민주주의에 도전하다] 참조)

2010년으로
통과.

② 여러 교차(intersection)들 중 하나로서의 성별 : 계급, 성별, 성적정체성, 민족/인종, 지역, 학력/학벌 등 불평등의 여러 교차점 중 하나로서의 성별. 미국 다문화주의 운동의 예.

(벨 후스, [벨 후스, 계급에 대해 말하지 않기] 참조)

③ '여성'은 무엇의 이름일 수 있을까?

3) 개인적인 의미들 : '혼자'도 아니고, '집단'도 아닌. 연대적 개인주의.

정치적 민주화
↓
일상·문화·연애
등에서 어떤
인식과
가능할 것인가

